

한국어 교사 재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 — ‘배움이음터’의 연수과정을 중심으로

양영희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2021S1A5A01064771)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음.

- I. 머리말
- II. 조사 과정
- III. 결과 정리 및 분석
- IV. 맺음말

I. 머리말

본 연구는 바람직한 교사 재교육 설계를 위한 일환으로, 한국어 교사들의 교육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교육에서의 교사 역량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정부 차원의 재교육 연수인 ‘배움이음터’는 이러한 면을 충분히 인지하여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체계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송향근·양순임(2017), 이선영(2018), 이진경(2014), 이해영·박석준·방성원·이미향·이정란·최은지(2017) 등에서 배움이음터를 포함한 재교육의 평가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새삼 다시 논의하려는 이유는 연구자 주변의 한국어 교사들과 대화에서 재교육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고 있음을 깨달은

1) 재교육 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가 긍정적인 평가(김은호·양명희·이경수·이훈, 2019, 2020; 이해영 외, 2017)와 부정적인 평가(강귀례·정상우, 2019; 박지순·최진희, 2010) 등으로 양분된 것으로 파악된다.

결과이다. 일례로 교사가 가르치는 학습 대상에 따라 ‘대학부설, 다문화, 사회통합 이수제’ 과정으로 구분·운영하는 현재 방식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이러한 구분 없이 한국어 교사로서의 전반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의 요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만약 이러한 인식 변화가 전국 단위의 한국어 교사들에서 확인된다면 그러한 변화를 교육과정(curriculum)에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하리라 생각한다. 그럴 때 재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환류 체계를 구축한 교육 운영체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행된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요구를 조사하여 그 결과만을 차후 운영에 반영하는 현재 평가 방식으로는 발전지향적인 변화를 모색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이미 짜여진 체계 안에서의 반복된 반성과 요구일 따름이어서 그로써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은 까닭이다.

본 논의는 여기에 입각점을 두어 재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배움이음터의 운영 방식 및 교육 과정에 견주어 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현재 공인된 재교육 기관이 배움이음터이므로, 교사들의 재교육에 대한 요구를 그것의 교육과정으로 견주어 보고자 한다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교사들은 비단 배움이음터에서만 재교육 연수를 받는 것은 아니어서, 그들의 재교육에 대한 요구가 비단 배움이음터의 연수 과정에 대한 요구로만 한정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II. 조사 과정

연구자는 IRB 심의를 마친²⁾ 2021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 한국어

2) IRB NO. 1040198-210525-HR-072-03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재교육 필요성과 요구’에 관한 양적·질적 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명과 이해를 돋기 위해 조사 과정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개요

가. 일시: 21.06~09(양적) / 21.09~12(질적)

나. 대상: 전국 한국어 교사

다. 방법: 네이버 설문 조사(양적) / 심층 면담(질적)

라. 분석: IBM SPSS Statistics 21v 프로그램을 통한 빈도 분석

먼저 네이버 카페인 ‘한국어교원 국제 한국어교육자 협회’에 설문 조사를 공지하여 조사 대상(1.나)을 모집하였으며, 한국어 교육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심층 면접 대상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대상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조사 대상

가. 설문 조사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근무지	수도권	86	51.8	경력	a	65	39.2
	강원도	4	2.4		b	34	20.5
	충청도	8	4.8		c	22	13.3
	경상도	21	12.7		d	24	14.5
	전라도	44	26.5		e	21	12.7
	제주도	3	1.8		소계	166	100.0
	소계	166	100.0				

※ a: 5년 미만 / b: 5년 이상~7년 미만 / c: 7년 이상~10년 미만 / d: 10년 이상~13년 미만 / e: 13년 이상. 이하 동일

나. 심층 면담(13인)

교사	기관	경력	교사	기관	경력
A	대학	a	G	대학 부설	c
	대학 부설	b		찾아가는 한국어	a
B	대학 부설	b	H	근로자	b
	다문화	a		찾아가는 한국어	a
C	대학 부설	e	I	대학 부설	b
	다문화	b		다문화	a
D	대학 부설	b	J	대학	a
	다문화	a		대학 부설	a
E	대학 부설	d	L	한국어 교실	a
	찾아가는 한국어	b		한국어 교실	a
F	대학 부설	e	M	한국어 교실	a
	찾아가는 한국어	a			

(2.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21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되었으며,³⁾ (2.나)의 대상과는 21년 7월부터 12월까지 1~3회 정도 심층 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를 통한 양적 조사로써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거기서 파악하기 어려운 면을 심층 면담으로 보완하려는 취지에서이다.

교사 경력 구별은 ‘한국어 교사의 경험 및 인식 차이를 관찰·분석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점을 5년, 7년, 10년, 13년’으로 판단한 이선영(2018: 120)의 기본 입장을 수용하되, 여기에 5년 미만을 추가하였다. 효능감 분석에서

3) 조사에 참여한 166명의 교사를 가르치는 기관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이때 교사가 2개 기관에 종사할 경우 2개의 설문에 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166명은 누적인원수임을 밝혀 둔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경력별 결과값을 주로 하고, 기관별 결과값을 참고로 한다는 점도 밝혀 둔다.

는 5년 이상이 유의미하겠지만(방성원, 2016), 재교육 관점에서는 5년 미만의 비교적 짧은 경력 교사들의 요구 파악이 중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서 더하여 조사 집단을 교사가 가르치는 기관별로 유형화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 목적에 따라 한국어 교사가 중점을 두어 가르쳐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가 함의되어 있다. 가령 유학생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지만 언어교육원 등의 대학 부설의 학습자는 대학 진학 조건인 TOPIK의 높은 등급 취득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경향이 높다. 그런 까닭에 유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쓰기 교육으로 리포트 쓰기를, 말하기 교육으로는 ‘토의(론)’하기 등에 중점을 두지만 대학 부설 기관의 연수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TOPIK의 답안지 쓰기와 말하기·듣기 방법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⁴⁾ 그런 만큼 교사 재교육 연수 과정의 교육과정도 이런 차이에 중점을 두어 설계해야 한다는 판단인 것이다.

배움이음터가 ‘대학부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이수제 지정 기관, ‘KSL 교육과정 운영 공교육 기관’으로 구별·운영한 이유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다. 본 논의에서는 여기에 ‘대학,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추가하고자 한다. 대학과 언어교육원은 넓은 범주에서 같은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학습자의 교육 목적은 다르므로 교사들의 재교육 요구도 다를 수 있다는

4) 이러한 면은 다음과 같은 면담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 가. “선생님, 정말 쓰기가 어려워요.” “…선생님한테 한번 (리포트를) 보여 가지고 체계를 접어서 잘 써 가지고 제출하지” 이라면 애들이 보이고 좀 그러거든요. …… 그러면 또 잘 하는 애들은 또 순서까지도 딱 바꿔 가지고 다시 또 “교수님이 다시 또 체크해 주세요.” 또 이라고 또 보내주고. 그 과정이 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정도 피드백이 오고가고 이러는 것 같아요(교사 J).
- 나. 아무래도 TOPIK 점수에 대해서 관심이 높긴 하죠. 특히 중급이나 고급단계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중급단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학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리다보니까 그 거에 대한 요구는 커요(교사 B).

위는 학생들의 요구가 대학(가)과 대학부설(나)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수업 내용과 방향이 달라짐은 물론이다.

생각과 함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종사하는 한국어 교사들도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번 기회에 이들의 교육요구까지 파악하면 향후 교육과정 설계에 적으나마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다.⁵⁾

이상의 관점으로 실시된 설문 내용은 다음 (3)과 같다. 여기서는 본 논의와 관련한 설문 내용의 대략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을 이용하기로 한다.⁶⁾

(3) 설문 조사 일부 내용⁷⁾

가. 재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I - 2, 3, 4)

나. 한국어 교수·학습법과 한국어 지식의 선호(II - 1, 2)

⑦ 한국어 지식: 한국어 교수·학습법

⑧ 한국어 교수법: 수업 실제 운영 방식

(3.가)는 재교육 필요성에 대한 기관·경력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며 (3.나)는 한국어 교수·학습법과 한국어 지식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한편으로 교수·학습법과 실제 수업 운영 방식의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상을 IBM SPSS Statistics 21v 프로그램을 통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설문 문항에 응답한 결과를 기관별, 경력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5) 표에 제시된 기관의 정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대학: 대학에 진학한 유학생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

(2) 대학부설: 언어교육원 등 대학 부설 기관의 한국어 연수생을 가르치는 교사

(3)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

(4) 사회통합: 사회통합이수제 기관의 한국어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

(5)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한국어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

(6)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공교육 기관에서 KSL에 의거한 한국어 교육을 받는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

6) 설문 조사는 교육 통계 전문가 1인, 한국어 교사 1인, 한국어교육 전공 1인의 자문으로 완성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7) 괄호 안의 번호는 부록에 제시된 설문 문항의 번호이다.

위와 같은 양적 조사의 결과만으로는 내재된 현상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⁸⁾

(4) 심층 면담 내용

- 가. 교사 재교육을 받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나. 기관별 재교육의 장·단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다. 일반 연수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라. 대학과 대학 부설 기관의 교사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마. 한국어교육에 대한 한국어 교실과 찾아가는 한국어 교사의 시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4.가~다)는 (3.가)의 설문 조사 결과값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질문이며, (4.라)는 '대학'과 '대학부설'로 구별한 본고의 태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후에 언급되겠지만, 현재 배움이터에서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은데,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습 목적의 다름에 방점을 두어 이들을 구별한바, 이에 대한 교사 당사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에 비하여 (4.마)는 동일한 학습 목적의 학습자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가 두 부류로 나뉨에 따른 한국어 교육과 학습자에 대한 견해 차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다.

8) 면담 대상자의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능한 객관적인 태도로 질문하고자 하였다. 특히 (4.라, 마)와 같이 면담자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는 경우에는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

III. 결과 정리 및 분석

배움이음터는 2010년 ‘국내 한국어 교원 공동 연수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2018년 배움이음터로 명칭을 바꾸고 그 해 4월에는 ‘시간, 비용상’의 이유로 제한되었던 교사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지역에 ‘찾아가는 배움이음터’를 운영하였으나 2019년 팬데믹 영향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고 있다. 여하튼 이 연수는 교사 기관의 차이에 중점을 두어 ‘국내 대학 기관 교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KSL 교원’으로 구별 운영되고 있다.

특별히 2019년에는 그동안 진행된 연수의 문제점을 ‘추상적인 대주제의 반복·순환’으로 파악하고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김은호 외(2019)). 그리하여 2020년에는 대학 전문 기관의 교사 대상으로는 ‘교실 운영의 실제와 전문 교원의 역할’을 주제로, 그 외 기관의 교사 대상으로는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의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하여 집합 연수 5회(1박 2일 1회/ 하루 4회)⁹⁾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21년에는 ‘국어원 개발 교재 소개 및 활용법’을 온라인 강좌로 총 5회 운영하였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을 종합할 때 배움이음터의 개설 방향은 다음처럼 정리된다.

(5) 배움이음터 개설 방향

가. 연수 유형: 기관별 연수

나. 연수 내용: 한국어 지식 및 교육 이론보다 수업 현장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교육에 중점

9) 1박 2일은 대학 언어교육원 소속 관리자급 및 경력 10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며, 1일은 그 이외의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다. 2018년까지 2박 3일 동안 합숙하는 형식이었지만 2019년, 2020년에 1박 2일로 단축하였고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만 운영하였다.

다. 연수 대상: ⑨ 대학 부설 기관: 10년 이상, 전문직

⑩ 그 외 기관: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교원

라. 연수 방법: 집합 수업 및 지역별로 찾아가는 수업

마. 연수 종류: 대면, 비대면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그동안 이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예비 조사에서는 교사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이 파악되는바, 그러한 변화 양상을 ‘교육 과정’과 ‘운영 체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교육 과정

배움이음터는 연수생들을 비롯한 한국어 교사 전반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음 〈표 1〉과 같은 교육 내용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표 1〉 2019 ‘배움이음터’의 교과 교육과정 일부

	대학기관	사회통합	다문화연수	KSL 연수
교실 운영 및 교과 교육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교수의 실제(90분)	사회통합프로그램 신규 교재 개발 의견 수렴(80분)	신다문화가정 교재 활용법(80분)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활용의 실제(80분)
	한국어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80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학습자를 위한 수업 운영 방안(70분)	한국어(KSL)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자 및 교육 내용의 이해(70분)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운영 방법(80분)
		사회통합 학습자를 위한 말하기 교육(80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학습자를 위한 화용 교육방안(7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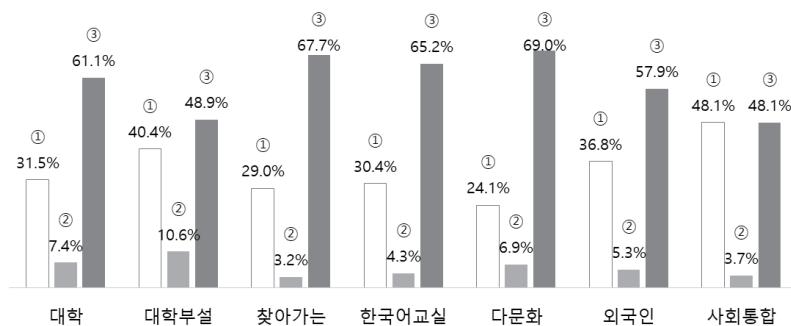
소계	170분	160분	220분	230분
상담 기법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한 학습자 상담 및 실제(50분)	
소계	0분	0분	50분	0분
분임토의 및 멘토링/ 간담회	교사 연수 및 교사를 위한 멘토링(80분)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 운영 방법 구안 실습 및 피드백 (80분)	다문화수업 운영방법 구안 실습 및 피드백(160분)	KSL 수업 운영 방법 구안 실습 및 피드백(160분)
	연수회 성과 정리 및 발표(150분)	분임토의 결과 발표 및 토의(70분)	분임별 활동 결과 발표 및 토의(70분)	분임별 활동 결과 발표 및 토의(70분)
	참가자 교류 시간(120분)			
	국립국어원과 간담회(90분)			
소계	440분	150분	230분	230분

〈표 1〉처럼 현재와 거리가 있는 2019년 교육과정을 조사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20년과 2021년은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당시의 교육 과정을 배움이 음터의 온전한 연수 내용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2년 동안 ‘한국어 교재의 이해와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해 준다. 비상 상황이 해제되면, 배움이 음터가 시작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되었던 위와 같은 교육 내용이 연수의 기본 체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2019년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연수생들의 만족도를 반영하여 세부적인 교육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 체계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교사 재교육’ 연수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표 1〉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상을 전제로 할 때, 위의 교육 과정은 ‘참가자 교류 시간’을 포함한 분임 토의 및 멘토링, 간담회 등이 대부분 실제 수업 경험과 피드백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1) 교수·학습법 중심

연수 종료 후의 해당 기관에서 실시한 위와 같은 운영 방식에 대한 교사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은호 외, 2020: 16-18). 결과에만 초점을 둔다면, 한국어 교사들은 ‘문법론, 화용론’ 등과 같은 명칭의 한국어 지식보다 교수 이론을 선호하며, 교수 이론보다는 실제 수업 운영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한 본 조사의 결과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한국어: 한국어 교수법의 기관별 선호도¹⁰⁾

곧 ‘사회통합’을 제외한 모든 기관 집단에서 한국어 교수·학습법뿐 아니라 한국어 지식 영역을 함께 배우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

10) 참고로 경력별 선호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력	한국어 지식
5년 미만	한국어교수학습법(31.1%), 한국어 지식(7.7%), 한국어교수학습법 + 한국어지식(61.2%)
5~7년 미만	한국어교수학습법(42.1%), 한국어 지식(8.8%), 한국어교수학습법 + 한국어지식(49.1%)
7~10년 미만	한국어교수학습법(21.1%), 한국어 지식(13.6%), 한국어교수학습법 + 한국어지식(65.8%)
10~13년 미만	한국어교수학습법(42.9%), 한국어 지식(2.0%), 한국어교수학습법 + 한국어지식(55.1%)
13년 이상	한국어교수학습법(29.7%), 한국어 지식(0.0%), 한국어교수학습법 + 한국어지식(70.3%)

럼 ‘한국어 지식’을 교육받고자 하는 교사들의 이유는 다음에서 찾아진다.

(6) 한국어 지식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가. 학생들이 저한테 문법을 정말 많이 물어 보거든요. 문법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 학생이 ‘에 따라서’와 ‘에 의해서’가 어떻게 달라요? ‘-아서’하고 ‘과’가 어떻게 달라요? 이런 걸 물어 봐요. 그래도 저는 여러 번 했으니까 문장을 예를 들면서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선생님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 가끔씩은 제가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문법을 조금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할까 그런 거를 조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교사 F)

나. 저는 문법인 것 같아요. 물론 자주 가르치게 되는 문법이 분명히 있고 또 그 수준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다루면 된다는 그런 게 있지만 문법은 워낙에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저런 책들을 보면서 익히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대로 볼 때마다 뭔가 아, 이런 설명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게 하나씩은 결국 나오는 것 같아요. … (교사 C)

위는 대학부설 기관에서 10년 이상 한국어를 가르친 교사들의 생각이다. 이들은 교수·학습법과 한국어 지식 모두를 중요시함을 전제로, 후자(문법 영역)를 더 선호하는 이유를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이런 결과는 해당 기관에서 실시한 ‘연수 과정’의 만족도 결과와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해당 기관에서 실시한 ‘사후 평가’는 특정 문항에 국한되는 평가이다. 예컨대 ‘이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로 묻고 5점 척도(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아주 낮음)로 답하게 하는 형식으로,¹¹⁾ 이에 대한 교사들의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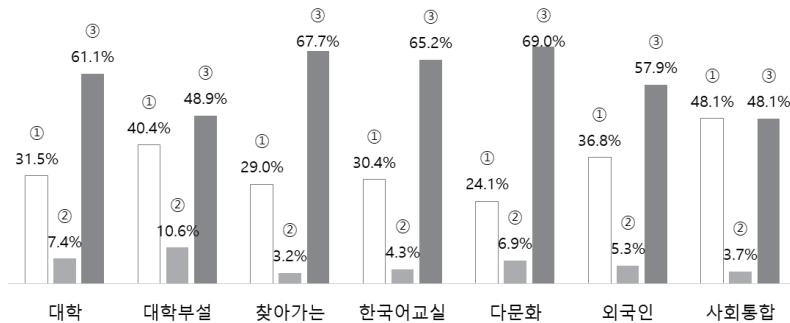
11)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배움이음터 결과 보고서』에는 질문 문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

족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조사는 위와 같이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를 묻는 형식으로, 여기서는 ‘교수·학습법’과 ‘한국어 지식’의 병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마땅하다는 의미이다.

어떻든 이러한 결과는, 교수·학습에 초점이 맞춰진 그동안의 연수를 통해서 교사들은 그에 대한 능력을 어느 정도 보강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이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한국어 지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만하다. 현재 연수 과정에 문법론, 어휘론, 의미론 등과 같은 한국어 지식을 다루는 교육과정이 전무하다는 사실(〈표 1〉 참조)이 새삼 상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2) 수업 운영 중심

앞선 〈표 1〉에서 파악되듯이 배움이음터는 교수법 가운데서도 ‘실제 교실 운영 방법’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교수 이론은 사회통합에서 말하기 교수법을, 다문화에서 화용교육 방안을 다루고 있을 때이다. 이와 관련한 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어 교수·학습 이론 ② 실제 수업 운영 ③ 한국어 교수·학습 이론+실제 수업 운영

〈그림 2〉 한국어 교수·학습 내용: 실제 수업 운영의 선호도¹²⁾

고 항목별 결과값만이 제시되어서, 이를 참조로 연구자가 추정한 질문 형식이다.

12) 참고로 경력별 선호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견했던 대로 두 영역을 모두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향의 ‘한국어지식: 한국어 교수·학습법’의 선호도 조사와 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은바, 이에 대한 교사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7) 교수법 이론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 가. 이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론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이 학습법에만 너무 치중하면, 약간 이런 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잔재주만 느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 단순히 이 학습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써 보겠어가 아니고 나름대로의 응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교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탄탄함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교수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교사 H)
- 나. 이론이 정립이 돼야 그 위에 쌓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교육 철학을 가져야. 위낙 새로운 것들이 많이 도입되는데, 그거를 다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 초등이면서 한국어 하는 사람들 중에 배움의 공동체라고 해서 같이 수업 분석하고 공유하고 그런 모임들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업에 대한 고민이나 철학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적용해 보고 아이들한테 말하고 가르치고 그런 거 다 적용을 하는

경력	한국어 지식
5년 미만	실제수업운영방식(44.6%), 수업도구활용법(30.8%), 교재활용법(20.0%), 교수학습이론(4.6%), 기타(0.0%)
5~7년 미만	실제수업운영방식(41.2%), 교재활용법(23.5%), 수업도구활용법(17.6%), 교수학습이론·기타(8.8%)
7~10년 미만	실제수업운영방식(45.5%), 수업도구활용법(36.4%), 교수학습이론(13.6%), 교재활용법(4.5%), 기타(0.0%)
10~13년 미만	실제수업운영방식·수업도구활용법(50.0%), 교수학습이론·교재활용법·기타(0.0%)
13년 이상	실제수업운영방식(71.4%), 수업도구활용법(19.0%), 교수학습이론(9.5%), 교재활용법·기타(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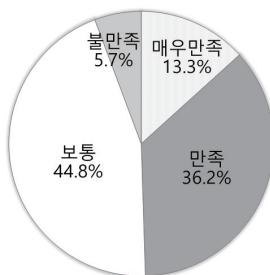
거라서... 이론은 있어야 돼요. 철학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갖고 그 다음 방법 같은 거 도입 되면 좋죠. 사례도 연구하고. (교사 L)

(7.가)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의 교사이고 (7.나)는 한국어 교실의 교사로 이들은 교수 이론과 실제 수업 운영 방안을 중시하면서도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전자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였다.

‘한국어 지식: 교수·학습법’, 그리고 ‘교수·학습 이론: 실제 운영 방식’의 선호도를 비교·대조하면서 연구자는 재교육 연수의 다변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였다. 교사들은 여전히 한국어 지식보다 교수·학습법을, 또 교수·학습 이론보다는 실제 운영 방식을 선호한다. 하지만 교수·학습법에 대비하여 한국어 지식을, 실제 운영 방식에 대비하여 교수·학습 이론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음을 확인한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모든 영역의 능력을 신장시키려는 것이 교사들의 현재 요구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2. 운영 체계

배움이터의 교육 운영에 대한 자체 조사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평가되었다(김은호 외, 2020; 이선영 외, 2018; 이해영 외, 2017 등). 그런데 본 조사에서는 다음 〈그림 3〉처럼 ‘보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재교육에 대한 만족도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 ‘교육 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지금부터 살펴 ‘운영 체계’에 대한 만족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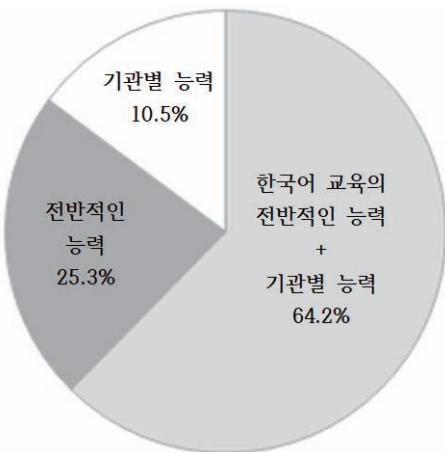
1) 운영 방식 및 운영 유형

앞의 (5)에서 살펴 대로 현재 배움이터는 전국 단위 수업과 지역 단위 수업을 함께 운영 중인데, 교사들의 62.3%가 전국 단위를 선호하며 37.7%가 지역 단위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 166명 가운데 86명 (51.8%)이 수도권 거주자이며 80명(48.2%)이 지역 거주자임을 고려할 때, 후자도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국 단위 수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단위 연수는 교통과 숙식 해결의 편의성 등이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타 지역 교사들과 교류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놓칠 수 있다는 관점이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처럼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를 병행하되, 전국 단위를 중심으로 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전국 단위 연수의 선호도가 높은 점을 주목하여 이를 우선시하면서 지역 단위를 개별적으로 선택하게 하면 위 결과를 전부 수용하는 셈이 되는 까닭이다.

한편 팬데믹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35.2%가 대면 수업을 선호한 결과를 보였다. 만약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면 대면의 선호가 많아질 가능성은 생각해 볼 법하지만 선불리 단정 짓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비대면 수업의 강점(박민신 · 윤여탁, 2019)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음을 고려할 때, 현재처럼 두 유형을 병행하되, 교육 내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생각해봄 직하다. 가령 지식이나 정보 전달의 성격이 강한 ‘한국어 정책’이나 ‘디문화 이해’ 등을 비대면 수업으로 하고 실습 중심이 되어야 하는 ‘수업의 실제 및 운영 방식’ 등을 대면 수업을 하는 방안이다.

연구자가 특별히 주목한 결과는 ‘운영 유형’이다. 배움이터는 기관별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구에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

는데, 본 조사에서는 다음 <그림 4>와 같이 한국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반적인 능력과 특정 기관에 필요한 능력을 아울러 신장시키기를 선호하는 한편 ‘기관별 능력 신장’을 ‘전반적인 능력 신장’보다 낮게 선호한 것으로 분석된 까닭이다.



<그림 4> 재교육에서 신장시키고 싶은 영역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설이 가능하다. 교사들은 현재와 같은 ‘기관별 연수’도 선호하지만 한국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포괄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연수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부언하면 현재 배움이 음터는 교사가 가르치는 기관에 따라 연수 과정을 독립적으로 개설·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과정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게 되므로, 선택한 분반에서 그 기관에 특화된 교육만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가령 대학부설 기관을 선택한 교사들은 TOPIK에 대한 이해와 답안지 작성을 위한 쓰기 교육을 선호하는 까닭에 연수 과정에서도 쓰기의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답안지 작성을 위한 쓰기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림 4>의 결과는, 교사들은 이러한 방식보다 한국어 교육 및 지식 등을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을 선호함을 확인시켜준다. 곧 자신

이 연수생을 가르치므로 TOPIK과 답안지 작성 요령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이외에도 생활문 쓰기, 편지 쓰기, 리포트 작성하기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쓰기 방법과 그에 필요한 지식 등을 배우고 싶어한다는 의미이다. 10 여 년 동안 기관별 연수가 지속되다 보니 교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역량을 특정 기관에만 한정하는 대신 한국어 교육 전반으로 확장시켜 나가길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하여 교사 1인이 2~3개의 기관을 병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다음과 같은 상황도 주요하게 작용한 듯하다.

(8) 여러 기관에 종사하는 한국어 교사들의 생각

가. 대부분 일주일에 몇 3시간은 언어교육원에서 가르치고 6시간은 초등학교에 가서 찾아가는 한국어 교사가 되는데, 학습 대상이 달라서 참 많이 혼동스러워요. 제가 정신적으로 분열된 듯도 하고요.(웃음) 그런데 이런 대상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식과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교사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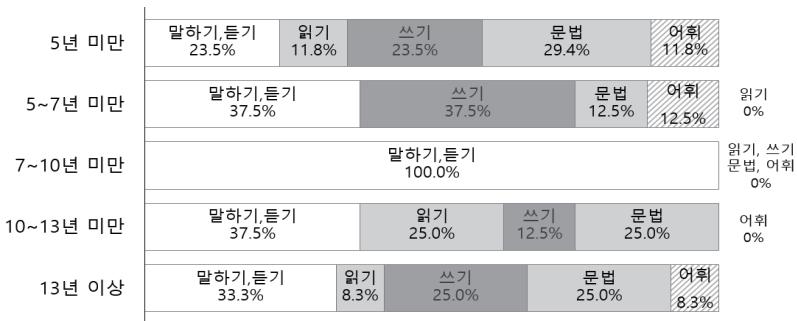
나. 저도 A 선생님 의견에 동의해요. 저 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언어교육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 물론 대상별로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어떤 원리 같은 것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이나 이론은 이러한데, 이런 것들이 학습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진다. 뛰어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거죠(교사 D)

심층 면담에 응한 대부분의 교사가 2개 이상의 기관을 병행하고 있었다.¹³⁾ 이처럼 여러 기관에서 각기 다른 교육 대상을 가르치다 보니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한국어 지식과 교수·학습 이론을 알아야 그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형성된 것이다.

13) 13명 가운데 2명은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이므로 순수한 한국어 교사는 11명인 셈이다. 이렇게 보면 1명을 제외한 모든 한국어 교사가 2개 이상의 기관을 병행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2) 경력 고려 여부

현재 배움이 익터는 방금 살핀 대로 기관별 운영을 원칙으로, 교사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유일하게 대학부설기관만 '10년 이상'으로 명시하고서 이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실제'만을 개설하고 있다(〈표 1〉 참조).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결과에서 개선 방향을 시사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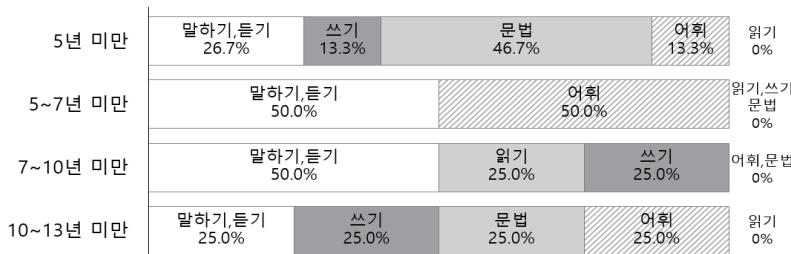


〈그림 5〉 대학부설기관의 경력별 한국어 교육 선호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배움이 익터에서 대학부설 기관의 연수 대상으로 제한한 '10년 이상'이 선호하는 교육 영역은 〈그림 5〉에서 확인되듯이 '말하기·듣기'이다. 이는 이 집단의 연수 과목으로 개설 중인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실제'와 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다(〈표 1〉 참조). 주지하듯이 의사소통에는 말하기·듣기뿐 아니라 쓰기도 포함되지만, 어떻든 전자가 의사소통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하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처럼 10년 이상만으로 제한할 경우 타당한 선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보다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말하기 교육을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집단은 '7~10년 미만'이며 그 외 경력에서는 읽기·쓰기·문법 교육의 선호도도 균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더욱이 재교육 요구가 90% 이상인 5년 이하 교사 집단의 선호 영역이 여타 집단과 달리 '문법 교육'이라는 사실

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대학부설 기관의 교사 연수도 특정 경력 집단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 연수와 같이 모든 경력을 포괄하되, 선호도를 고려한 경력별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경력에 따른 선호도 차이는 모든 기관에서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일례로 ‘사회통합’ 교사 집단의 경력별 선호도 차이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사회통합의 경력별 한국어 교육 선호도

2019년 배움이음터에서 ‘말하기 교육’이라는 직접적인 명칭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한 집단은 ‘사회통합’이 유일하다(〈표 1〉 참조). 위의 〈그림 6〉에서 확인되듯이 ‘말하기·듣기’ 교육의 선호도가 모든 경력 집단에서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일견 타당한 선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더 세밀히 살피면 7~10년 미만인 교사 집단으로만 한정된 선택임을 깨닫게 된다. 10~13년 미만 집단에서는 말하기·듣기 이외에 ‘문법·쓰기·어휘 교육’도 대등하게 선호하며 5~7년 미만 역시 어휘 교육과 대등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년 미만 집단은 문법 교육의 선호가 가장 높아 다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지면 제약뿐 아니라 논지 전개의 느슨함을 피할 요량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기관 집단에서도 경력별 선호도 차이는 관찰된다. 즉 모든 경력을 포괄하여 선호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말하기·듣기’ 교육임을 전제로 할 때, 대

학에서는 5년~7년 미만과 13년 이상에서 쓰기 교육이 각각 57.9%, 37.5%로 1순위이며, 다문화에서는 10~13년 미만에서 어휘 교육이 1순위(60.0%)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직무별 중점 연수로 간주되는 배움이음터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도달한다. 요컨대 직무별 연수를 우선시하되, 동일 직무를 다시 경력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굳이 본 조사처럼 경력을 세분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다. 변별력을 가진 경력 집단으로만 구분하는 방법도 있을 터이다. 가령 <그림 5>와 <그림 6>에서 5년 미만의 집단은 다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 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 내용을 달리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더하여 직무별 교육 과정 이외에 일반 교육 과정을 따로 두어 선호도가 가장 많은 ‘말하기·듣기’ 교육을 전반적으로 시행한 후에, 직무별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IV. 맷음말

본 연구는 바람직한 교사 재교육 설계를 위한 일환으로, 한국어 교사들의 재교육 교육과정의 선호도를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현재 운영 중인 ‘배움이음터’ 연수 과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의 개선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첫째 운영 체계의 측면이다. 현재는 직무별 교사 능력 신장에 중점을 두지만 교사들은 한국어 교사로서의 일반 능력도 함께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경력별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동일 직무 내에서도 경력에 따라 선호하는 교육 영역에 차이가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과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

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교육과정 편성의 측면이다. 현재는 한국어 지식보다 교수 이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교사들은 두 분야의 능력을 함께 신장시키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수 이론과 현장 수업 운용법을 함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 교수 이론을 수업 운용법의 원리로 인식하여, 정확한 교수 이론이 바탕이 되어야 현장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상과 같은 요구는 재교육 연수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동일한 운영 방식이 근 10여년 동안 지속된 데에 따른 변화의 기대로 읽힌다. 사실 많은 교사들이 현재의 연수 경험이 있을 터여서, 이제는 특정 기관별 특화된 역량보다는 한국어 교사로서의 역량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에 토대한 변화의 요구인 것이다.

실행된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는 이미 짜여진 체계 안에서의 반복된 반성과 요구일 따름이어서 그로써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본 연구가 배움이음터의 개선 방향에 조금이나마 발전적으로 소용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이러한 바람이 보다 현실적이 되기 위해서는 비단 배움이음터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운영되는 재교육 만족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대한 결과값을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차후 이에 대해 보완하기로 한다.

* 본 논문은 2022.04.18 투고되었으며, 2022.05.14 심사가 시작되어 2022.06.1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귀례·정상우(2019), 「대학기관 소속 한국어교원의 국립국어원 교원연구 참여 경험에 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5(6), 381-400.
- 김은호·양명희·이경수·이훈(2019), 『2019 한국어교원 대상 배움이음터 개최·운영 보고서』, 경기: 국립국어원.
- 김은호·양명희·이경수·이훈(2020), 『2020 한국어교원 대상 배움이음터 개최·운영 보고서』, 경기: 국립국어원.
- 박지순·최진희(2010),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어 교사들의 인식 조사」, 『한국어교육』 21(3), 45-76.
- 박민신·윤여탁(2019), 「한국어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재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향」, 『교육문화연구』 25(6), 329-349.
- 방성원(2016), 「한국어 교사 재교육의 쟁점과 과제」, 27(2), 79-103.
- 송향근·양순임(2017), 「예비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한국어교사의 인식」, 『한국어교육』 28(1), 13-139.
- 이선영(2018), 「한국어 경력교사 대상 요구조사를 통한 성찰적 교사교육 방안 모색」, 『한국어교육』 29(1), 109-137.
- 이진경(2012), 「한국어 교사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인문학연구』 89, 131-152.
- 이해영·박석준·방성원·이미향·이정란·최은지(2017), 「발전기 및 심화기 한국어 교원 재교육」, 『우리어문연구』 59, 383-407.

한국어 교사 재교육에 대한 요구 파악 — ‘배움이음터’의 연수과정을 중심으로

양영희

본 연구는 바람직한 교사 재교육 과정 설계를 위한 일환으로, 한국어 교사들의 재교육 교육과정(curriculum)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교사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였다.

첫째 운영 체계의 측면이다. 현재는 직무별 교사 능력 신장에 중점을 두지만 교사들은 이와 함께 한국어 교사로서의 일반 능력도 신장시키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직무별 교육에 경력에 따른 선호도 차이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동일 직무 내에서도 경력에 따라 선호하는 교육 내용이 다른 만큼 경력별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교육과정 편성의 측면이다. 현재는 한국어 지식보다 교수법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교사들은 두 분야 모두에 대한 능력을 신장시키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수법과 현장 수업 운영법을 함께 요구하였다. 현재는 수업 운영법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교수법 이론에 대한 학습도 병행하기를 선호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구는 현재의 재교육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동일한 운영 방식이 근 10여 년 동안 지속된 데에 따른 변화의 기대로 읽힌다. 사실 많은 교사들이 현재의 연수 경험이 있을 터여서, 이제는 특정 직무에만 특화된 역량보다는 한국어 교사로서의 역량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에 토대한 변화의 요구로 읽힌다.

핵심어 교사 재교육, 직무, 경력, 한국어 지식, 한국어 교수법, 한국어 수업 운영법, 배움이음터

ABSTRACT

Assessment Needs for Re-education of Korean Teachers

Yang Younghé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ferences of Korean teachers regarding design of a desirable teacher re-education course, through which the following improvement directions were confirmed and suggested.

The first is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operating system. Currently, the focus is on improving the teacher's ability for each task; however, it was found that teachers expect to concurrently increase their general ability as Korean language teachers. Moreover, the study revealed that the differences in preference by career should be reflected in task-specific education. More precisely, this implies that the training curriculum for each career should be structured so that the preferred training content differs by experience even within the same task.

The second refers to the curriculum organization. Although the current focus is on teaching methods rather than on Korean knowledge, we determined that teachers expect to develop skills in both fields. In this context, demands were placed on the methods of teaching and field class operations concurrently. Currently, the focus is on managing classes, but teachers prefer to study teaching theory simultaneously.

The above demands indicate an expectation of change after continuing to apply the same operating method for approximately 10 years rather than reflecting dis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re-education curriculum. Since many teachers have had training experience, the change should be based on the desire to expand their competency as Korean language teachers rather than on specific tasks.

KEYWORDS Teacher Re-education, Task, Career, Korean Language Knowledge, Korean Language, Teaching Method, Korean Language Teacher Training program, (Baeum-ium-teo)

(부록)

※본 논문과 관련한 설문 문항을 강조함으로써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한다.

I. 재교육에 대한 인식

1. 교사 자격증 취득 이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1. 경험이 있다면 어느 기관에서 받으셨습니까?

- ① 근무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② 근무 기관 외 교육

1-2. 경험이 있다면, 교육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3. 재교육 연수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교사의 능력 신장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 없다

3. 재교육을 받는다면 어느 쪽에 참여할 의사가 더 많으십니까?

- 3-1. 수강 방법 ① 온라인 ② 오프라인
3-2. 수강 일정 ① 주중 ② 주말
3-3. 참가자 ① 전국 단위 ② 지역 단위

4. 다음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육 운영 방식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직무(기관)별 재교육보다 한국어 교사로서 일반적인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 ② 한국어 교사로서 일반적인 능력보다 직무(기관)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 ③ 한국어 교사로서 일반적인 능력과 직무별 능력 모두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II. 직무별 ()

* 다음은 ()에서 근무하신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0. ()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5년 미만
- ② 5~7년 미만
- ③ 7~10년 미만
- ④ 10~13년 미만
- ⑤ 13년 이상

1. ()에서 근무하는 교사로서 재교육을 받는다면 한국어 교수·학습법과 한국어 지식 가운데 어느 분야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한국어 교수·학습법
- ② 한국어 지식
- ③ 두 영역 모두

2. ()에서 근무하는 교사로서 재교육을 받는다면 한국어 교수·학습법 가운데 가장 교육 받고 싶으신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교수·학습 이론
- ② 교재 활용법
- ③ 실제 수업 운영 방식
- ④ 수업 도구 활용법
- ⑤ 기타

3. ()에서 근무하는 교사로서 재교육을 받는다면 한국어 지식 가운데 가장

교육 받고 싶은 영역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어휘론 | ② 문법론 |
| ③ 의미론 | ④ 음운론 |
| | ⑤ 담화론 |

4. 대학의 한국어 교육에서 다음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말하기, 듣기 교육	○	○	○	○	○
② 쓰기 교육	○	○	○	○	○
③ 읽기 교육	○	○	○	○	○
④ 문법 교육	○	○	○	○	○
⑤ 어휘 교육	○	○	○	○	○

5. ()에서 근무하는 교사로서 재교육을 받는다면 한국어 교육 가운데 가장
교육 받고 싶으신 영역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말하기·듣기 교육 | ② 쓰기 교육 |
| ③ 읽기 교육 | ④ 문법 교육 |
| | ⑤ 어휘 교육 |

5-1. 말하기·듣기 교육 중 가장 교육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
| ① 발표 | ② 토론 | ③ 면접 | ④ 기타 |
|------|------|------|------|

5-2. 쓰기 교육 중 가장 교육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리포트 작성법 | ② 쓰기 피드백하는 법 |
| ③ 설명문 쓰기 | ④ 이력서 쓰기 |
| | ⑤ 기타 |

5-3. 읽기 교육 중 가장 교육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논설문 읽기 | ② 공지문 읽기 |
| ③ 제품 설명서 읽기 | ④ 공문서 읽기 |
| | ⑤ 기타 |

5-4. 문법 교육 중 가장 교육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문법 사용 ② 문장 구조 파악 및 사용 ③ 기타

5-5. 어휘 교육 중 가장 교육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직장 내 호칭 ② 언어 예절
③ 업무 용어 ④ 기타

6. 대학의 한국어 수업에서 다음은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안 됨	별로 안 됨	보통	잘 됨	매우 잘 됨
① 말하기, 듣기	○	○	○	○	○
② 쓰기	○	○	○	○	○
③ 읽기	○	○	○	○	○
④ 문법	○	○	○	○	○
⑤ 어휘	○	○	○	○	○

7. ()에서 근무하는 교사로서 한국어 지식 및 교수·학습법 이외에 갖추어야 할 능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가 정책 및 법률 지식(노동, 근로법, 출입국관리법, 다문화지원법 등)
② 다문화이해(교육) ③ 상담 관련 지식
④ 생활문화 지식 ⑤ 한국사 지식 ⑥ 기타